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한국적 인상주의 오지호 작품세계 조망

전남도립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오지호 탄생 120주년 공동 기획전

일본 동경예술대 졸업 작품 ‘자화상’부터 국가등록문화재 ‘남향집’ 등 대표작까지 고희·모네 프랑스 인상주의 소개 VR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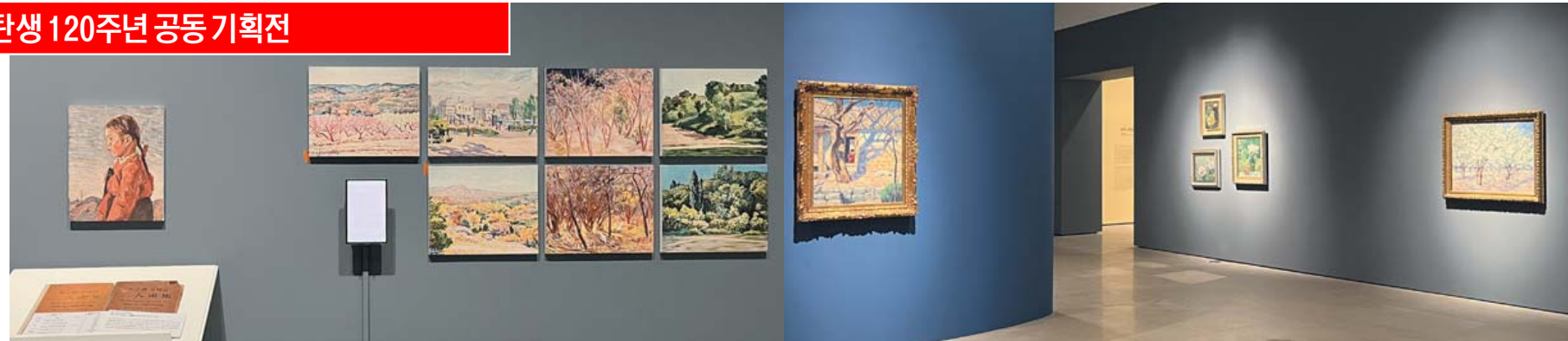


‘자화상’

내년은 한국 인상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오지호 화백의 탄생 120주년이다. 그는 한국의 자연과 풍토를 주제로 ‘빛에 의해 약동하는 생명’을 표현하고자 인상주의 기법을 도입,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했다. 맑고 밝은 색채와 빛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의 생명력은 오지호 화백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다. 한국 자연주의와 서구 인상주의 화풍을 결합한 그의 그림은 동양적 정신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전시 ‘오지호와 인상주의: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았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오지호 화백 전 생애를 아우르는 회화작품 100여점을 비롯해 아카이브 100여점, 데드마스크 등 오지호의 유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크게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인상주의 천재 기 제작된 작품을 선보이는 1부 ‘인상주의를 탐색하다’,



오지호·김주경 2인화집에 수록된 작품 이미지(왼쪽)와 국가등록문화재 ‘남향집’ 등을 전시 중인 1부 전경.

해방 이후 남도의 산·바다 풍경 등을 담은 2부 ‘남도 서양화단을 이끌다’, 3부 1970년대 이후 남도의 모습과 유럽 여행 풍경, 아카이브를 전시 중인 3부 ‘한국 인상주의를 구현하다’이다.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오지호의 자화상이다. 동경예술대학 졸업생이라면 반드시 그려야 하는 졸업작품으로, 이곳 전시 공간에서는 함께 공부했던 김홍식, 김용준의 초상화를 비롯해 오지호의 스승이자 일본 대표 인상주의 화가인 후지시마 다케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최초 서양화 미술 단체인 ‘녹향회’ 활동 당시 그린 그림, 한국 최초의 원색화집 ‘오지호·김주경 2인화집’에 수록된 ‘처의 상’, ‘임금원’도 함께 전시 중이다. 국가등록문화재이자 한국적 인상주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남향집’도 만날 수 있는데, 그림에 담긴 따스하고도 정겨운 분위기가 한동안 발길을 붙잡았다.

2부는 광주와 목포 등 남도의 산, 바다 풍경을 그린 그림들이 주를 이룬다. 꽃과 식물, 열대어 등을 그리며 남

도 서양화단을 주도했던 시기(1946-1970) 작품들이다. 여기에서는 오지호의 화업을 이어간 아들 오승우와 오승운, 장손 오병욱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빛과 색채로 구축한 남도 풍경부터 1974년과 1980년 두 차례 유럽 여행을 통해 담아낸 이국 실경 등은 3부에서 전시 중이다. 특히 그의 생전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으로 남겨진 ‘세네갈 소년들’도 선보인다.

작품 뿐만 아니라 문헌과 사진, 실물자료 등을 토대로 구성된 아카이브도 다채롭다. ‘구상회화론’, ‘순수회화론’, ‘피카소와 현대회화’ 등 다양한 주제의 회화 관련 논문 자료도 있다. 민족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말 표기와 국한문 혼용 사용, 한자교육 운동을 주창한 사회사상가로서의 면모도 엿볼 수 있다.

오화백이 사용하던 이젤과 팔레트, 작업의자 등 유품들이 마지막 공간을 채우며 전시는 마무리된다. 자연 속 아름다움을 한국의 빛과 색채로 담아내려 했던 그의 화업 인생을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전시와 연계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겨볼 수 있

다. 프랑스 인상주의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VR체험이다.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 ‘수련의 집착’을 바탕으로 지베르니 정원으로 떠나보기도 하고, 오화백이 사용하던 이젤과 팔레트, 작업의자 등이 전시된 공간.

이제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오화백만의 빛과 색채로써 자연과 대상에 대한 생명력을 담아낸 작품들을 감상하며 생명의 찬가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 개막식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28일 오후 2시에는 전시 연계 국제 학술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최명진 기자

캐나다 파빌리온 ‘집 그리고 또 다른 장소들’...연대하고 확장하다

오타와서 ‘2024 공동창작 작품’ 첫 공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진행 중인 캐나다 파빌리온 ‘집 그리고 또 다른 장소들’이 캐나다 오타와 주 캐나다한국문화원 전시로 확장 연결돼 눈길을 끈다.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문화원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2024-2025 한국과 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2년여 간의 상호 예술적 교류와 협업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북극 누나부트 킵가이트 지역 이누이트 예술가들과 광주 예술가들의 문화 교류를 통해 공동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특히 이번 오타와 전시에서는 광주 전시에서 선보이지 못했던 킵가이트 이누이트 작가 3명

과 한국 작가 2명의 ‘2024 공동창작’ 판화를 전시장 벽화로 완성해 처음 공개했다.

‘집’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전시에서 김철아 작가는 ‘영혼의 모양/비람 같은/벨루가의 온기’ 드로잉과 설치 작품 ‘영혼의 모양’, 이조흠 작가는 캐나다 이누이트 고글을 재해석한 조각 설치작업 ‘반영’, 주세웅 예술가는 ‘땅’을 주제로 한 무브먼트 비디오를 선보였다.

특히 5일 열린 전시 개막 행사에서는 한국 예술가 주세웅과 이누이트 작가 매튜의 전통 드럼 음악 및 댄스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져 이목을 끌었다. 또한 한국-캐나다 큐레이터, 참여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광주와 킵가이트 이누이트 작가 ‘2024년 공동창작’ 판화

‘작가와 대화’도 마련됐다.

전시 기획을 맡은 이선 이강하미술관 실장은 “한국과 캐나다 예술가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며 친숙해짐으로써 낯선 장소도 또 다른 ‘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전시였다”며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사회에 드러나는 여성의 표면과 이면’

광주여성가족재단, 제7회 허스토리 기획공모전 수상작 전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다음달 13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에서 제7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 수상작 전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림자’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명칭과 프레임으로 여성에게 씌워지는 사회적 이슈를 예술적 시각으로 조망한다.

전시 주제에는 사회에 드러나는 여성의 표면과 이면이 마치 그림자와 같이 드리워진다는 의미가 담겼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조과 작가의 시를 중심으로 강부연(회화), 윤송일(클래식) 작가의 신작을 선보인다.

세 명의 작가는 각자의 문장을 던지고 긴밀히 협력하며 새로운 시각 언어를 통해 예술적 서사를 구축했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사회 표면에 드러나는 여자와 이면에 드리워지는 여자의 모습을 문학·미술·음악으로 표현한 이번 전시가 다양한 예술을 통해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정,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지사 010-3738-8989

지사 062) 525-7585